

지역 소식통

김제시의회, 하반기 의원 국내연수 실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국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하여 2025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 심사기법 및 행정사무감사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사전 습득에 전제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수 첫째날과 둘째날에는 기획재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유지영 박사로부터 김제시 전년 결산서와 예산서를 가지고 실제 사례 중심의 심도 있는 예·결산 심사 기법을 수강하며 2025년 본예산 심사에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

연수 마지막 날 오전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이상민 수석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조사 핵심착안사항 및 정책홍보전략에 관한 강의를 받았고, 오후에는 제주 동문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제주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작년 말 현대화 사업을 마친 동문시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김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의 방문이다.

서백헌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더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제9대 김제시의회는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스마트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회적기업 명랑캠페인

김제 드림스타트 아동 후원

사회적기업 명랑캠페인(대표 오호진)이 김제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후원한다.

디딤씨앗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녀형성지원사업으로 아동이 일정한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명랑캠페인은 올해부터 시 드림스타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월 2만원씩 1년동안 디딤씨앗 통장 적립금(총 240만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생 활시설인 소망 그룹홈에 300만원을 추가 후원하는 등 김제시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과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 명랑캠페인은 문화 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소외 계층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후원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오호진 명랑캠페인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김제시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드림스타트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로 도약

## 완주군, '수소의 날' 행사 열고 수소산업 육성 비전 선포

### 전기안전공사·AES Tech·수소에너지고교에 감사패

수소산업 선도도시 완주군이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6일 완주군은 지난해 수소법 개정으로 11월 2일이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자 이를 기념해 수소산업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완주군은 완주우석점광대(우석대학교 분관 W-SKY, 23층)에서 주민, 우석대 및 수소에너지고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30년 기업유치 100개, 누적매출 30조원, 고용창출 1만명’, ‘수소산업 초격차기술 확보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지원책 마련’으로 수소전망기회 집적화’ 3대 목표를 소개했다.

## 정성주 김제시장, 내년 국비 확보 막바지 행보

### 국회 방문 현안 반영 건의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시장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행보를 펼쳤다.

정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이원택 의원(봉해수위), 윤준병 의원(봉해수위·예결위), 조배숙 의원(법사위·예결위), 이춘석 의원(국토위) 등을 만나 김제시 중점사업에 대해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만나 김제시 현안사업인 △용지 정착농원 현업 촉사 매입사업(2차)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에게는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예결위원회 윤준병 의원과 조배숙 의원에게 시 중점사업인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용지 정착농원 현업촉사 매입사업(2차),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사업,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또한 지역구 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2025년 국가예산 중점사업 중 정 부단체 과소·미반영된 사업 전반에 대한 과소 있는 검토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추진 전략으로 수소모빌리티 및 전후방 부품산업 육성과 수소산업 인증 도시 고도화, 수소산업분야 연계 가능 신산업 발굴 및 정주기 지원체계 구축, 기업 수요대응 인재양성과 우수인력 지역 정착 유도 및 채용연계 추진을 내세웠다.

주요과제는 중대형 수소상용차 산업, 특장차·건설기계·농기계, 국제 수소 거대소 설립, e-fuel 산업 육성, 지능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역학교 연계 교육 등 총 12개 과제가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경제를 통해 완주의 가치를 더해 나가겠다”며 “완주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한 정성주 김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 오른쪽)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정 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가예산의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 행정책을 동원해 김제시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본심사에 돌입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새만금수목원 조성 진행상황 공유 |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027년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정상적 개원을 위해 국가 예산확보를 강화하고, 순천만습지 및 순천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한 ‘제9차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에 적극 협력하는 등 수목원 조성에 앞장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로, 그동안 8회에 걸쳐 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지역 상생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날 지역협의회에서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공사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순천만습지 및 순천국가정원의 지역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지역 상생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등 심도 있는 내용이 논의됐다.

## 김제사랑장학재단, 도민체전 우승 초등생에 격려금 전달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 김제시장)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지역 초등학생 7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수상자는 김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김산초등학교 학생들로, 씨름과 수영, 멀리뛰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각 학교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정성주 이사장은 각 학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직접 전달하며 “전북도민체



순천만습지 및 순천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린 ‘제9차 국립새만금수목원 지역협의회’.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건축 및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나무들도 식재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식목일 행사를 국립새만금수목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수목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전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앞으로도 꿈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제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힘든 준

수소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완주 수소산업 발전 및 인력양성에 큰 공을 기여한 한국전기안전공사, AES Tech, 수소에너지고교에 포상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이정희 수소산업담당관의 수소산업 추진성과 보고와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이 수소특화단지(산업부)공모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박동규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교사는 수소에너지고등학교를 소개하고, 지역 전라선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을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취업문을 두드림(DoDreaM) 김제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6일 “2024년 김제시 일자리박람회”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이번 행사에는 로얄캐닌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등 42개의 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별 채용계획과 구직자들의 최근 희망을 공유했다.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 기회를 열고 자기 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식품산업발전연구원, 전주벤처기업혁신지구발전협의회(JVADA) 등을 포함한 총 10개의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이 출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유치하자”

### 서남용 완주군의원, 5분 발언 “청년 일자리 조성 밀거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완주에 유치하여 청년 취업은 물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남용 의원은 “삼성전자가 고층에 대규모 불류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면서 전북에 대한 삼성의 최초 투자 사례가 되었다”라며 “삼성전 전북특별자치도에 첫 투자를 함에 따라 모처럼 찾아온 이번 기회를 완주 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이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의원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정보기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 29세 미만 미취업 청년 누구나 소프트웨어 무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은 취업률이 잘 대변하고 있어, 교육이 지원된 2018년 이후 수료생들이 실천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면서, 누적 취

업자 수는 4,000명을 돌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완주에 설치되면 전북 청년들도 폭넓은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실력 있는 전북 출신 디지털 인재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석대학교 여류 건물을 활용하면 전북 곳곳에서 접근하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교육 시설인 만큼 개소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 실업률 감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디지털 스타트업 청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좋은 청년 일 자리를 만드는 데 든든한 밀거름이 되고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의원이 앞장서 의원님들과 함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완주에 유치하여 청년 취업은 물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열린 ‘2024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는 완주군이 전국의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해 개최했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 영화제로 아동친화도시 가치 상승

### 아동권리영화제 성공... 완주군, 마중물 역할 '톡톡'

완주군이 아동권리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아동친화도시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열린 ‘2024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는 완주군이 전국의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해 개최했다.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영화 작품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완주군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아동권리영화제는 100여 개의 아동친화도시가 연대하는 마중물 역할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제는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과 군청 로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본선에 오른 46편의 경쟁 부문 상영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상영 후에는 아동·청소년 감독들이 직접 참여하는 GV(관객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작품 소개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이 융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과 예고편 상영, 조미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이바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들의 참석 속에 축하와 시상식이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영화제에서 출품된 작품들의 높은 수준과 아동·청소년 감독들의 열정을 찬사하며, 아동의 시각에서 본 다양한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음을 강조했다. 영화제는 최종적으로 우수 작품 26편을 선정하고 시상하며 마무리됐다.

아동부문 대상은 충북 청주 율령중학교 이민영 아동 외 8명이 제출한 ‘내게 여름을 줄게’ 작품이 선정됐으며, 솟품부문 대상은 창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지혜 학생이 제출한 ‘내 마음은 무슨 색깔?’ 작품이 선정됐다. /완주=염재복 기자